

고흥군, '드론산업 메카' 띄우기 박차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내년 준공 등 세부 사업 방안 마련 무인항공기 전문단지 조성...스마트영농 운영 시스템 구축

고흥군이 4차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세부 사업 방안을 수립하는 등 고흥을 '드론산업 메카' 로 띄우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흥군은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준공해 드론산업 생태계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는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9124㎡ 규모로 총 198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 입주공간(25실), 창업보육실 및 기업지원 시설, 드론체험장 등을 건립한다.

군은 또 드론기업 유치에 위해 항공센터 인근에 13만5455㎡ 규모로 2023년까지 무인항공기 전문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드론전시체험장을 조성해 VR, MR 등을 활용한 최신 콘텐츠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2023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해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영농 실증 확산 사업을 위한 운영시스템개발 및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향후 드론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국가 유·무인기 인증·통합 관제 인프라 구축사업과 비행시험 실증 인프라 기반 구축사업을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2월 중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드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중앙부처 드론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드론특화 시책'을 발굴·건의하고, 드론기술개발 및 성능 실증시험을 실시해 표준 매뉴얼을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 향후 드론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국가 유·무인기 인증·통합 관제 인프라 구축사업과 비행시험 실증 인프라 기반 구축사업을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도심용 항공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모빌리티(UAM) 상용화 대비 타당성 등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 유

치 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드론 공공 서비스 시장 분야를 확대해 고흥을 국내 최대의 드론산업 도시로 조성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고흥군, 귀농 창업·주택구입 지원 신청 접수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고흥군이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거주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이 사업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 기간 내 접수를 받아 귀농인원 수, 교육이수실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고흥군(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또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용자)을 받을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최근 고흥군 귀농귀촌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초기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상담~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함께 농업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행안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보성군,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보성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 재난대비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재난대응 행정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전국 242개 기관이 참여한다.

군은 작년 유치된 소재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산사태' 발생 유형으로 훈련을 선정해 산림청, 보성경찰서, 보성소방서를 비롯한 17개 기관·단체 및 군민 300여명과 함께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군은 군과 유관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 점과 군수가 직접 훈련을 지휘해 실제 재난 상황과 동일

한 훈련을 실시한 것이 호평을 받았다.

또 훈련 기간 중 재난대피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민간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한 것과 합동점검반이 시설 점검을 겸해 재난 약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훈련 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해 이어 연속으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유관기관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훈련과 군민 참여의 쾌거"라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실제 재난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보성군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곡성군, 농업미생물배양장 신축키로

생산능력 2배 증가...친환경농업 증가 등 수요 대거

곡성군이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의 농업미생물배양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새 배양장에는 고흥도의 미생물을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는 고성능 미생물 배양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곡성군은 2013년부터 농업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농업이 크게 늘고, 축사 악취개선을 위해 농업미생물의 수요량이 늘어나 배양량 확대가 절실했다.

최근 3년 간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2017년 100t에서 2019년 213t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앞으로도 농업미생물에 대한 수요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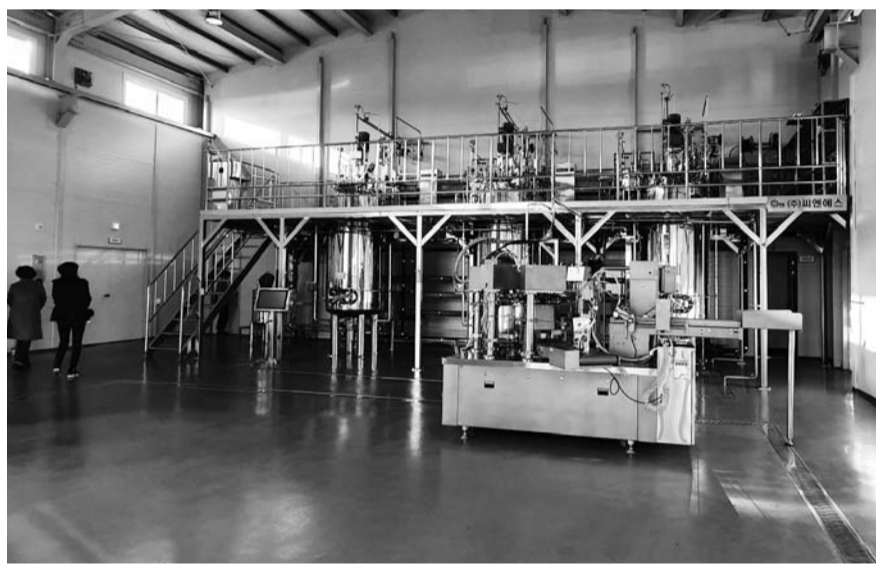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년농업인의 유입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들의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요구 등 농업미생물 사용을 촉진시킬 대내적, 대외적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기존 배양시설에 더해 고성능의 미생물배양기를 갖춘 생산시설을 신축해 수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신축이 완료되면 미생물 생산능력이 현재보다 2배로 늘어난다.

미생물 농도도 10~100배 이상 끌어 올려 배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배양기는 고압 증기멸균을 통해 잡균 오염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각종 계측



고성능의 미생물을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는 고성능 미생물 배양기.

제어장치를 통해 목적 미생물배양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곡성군 관계자는 "미생물 생산량 확대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도가 높아 기존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기에 농작업도 편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곡성 천태암 '전통사찰 제 97호' 지정

불교·문화·예술·건축 등 역사적 가치 뚜렷

곡성군은 목사동면 신기리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천태암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 제97호' 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사찰 중 역사적으로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거나, 불교·문화·예술·건축 등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산으로서 의미를 가진 사찰을 말한다.

천태암은 신라 문무왕 5년(665년) 혜

암율사가 창건한 고찰로 알려졌다.

고려 시대 보조국사(普照禪師)가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곡성군 죽곡면 동리산 태안사를 둘러본 후 천태암에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보조국사는 자연 석굴에 심오 나한을 모시고 범당과 요사를 중창해 후학을 양성했다.

현재 천태암에는 극락보전, 나한전(석굴), 산신각, 요사(음향각) 등의 건축물

과 함께 산 정상 부근에 보조국사가 수행했다는 좌선대가 남아 있다.

석조나한상편,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외편·자기편 등 유물이 역사성을 인정받아 전통사찰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천태암이 지역의 자랑으로 자리 잡아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존 및 계승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세일콜

"지역사회와 주민 안전 확보 최선"

강은석 구례경찰서장



"지역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지난 20일 제73대 구례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강은석(51) 서장은 "우리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존재 이유는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112신고 출동과 사건사고 현장,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다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조했다.

신임 강 서장은 순천출신으로 동국대학을 졸업하고 시흥서 경비교통과장, 경기남부청 청문감사담당관실 특별조사계장, 경기남부청 치안지도관 등을 역임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